천국 그리움 갖기와 키우기

(마태복음 13:24~30)

24.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29.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천국 그리움 갖기와 키우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천국 그리움 갖기와 키우기'

신앙생활의 최종목표가 있다면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체감과 현실감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교리로 배우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리를 고백함과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감함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풍랑 만난 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드러났던 믿음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하늘 보좌 우편까지 마음을 보내는 십자가 생활화가 이해는 되지만 그로 인한 체감과 현실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 생활화를 해도 여전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삶이 현실로 느껴질 뿐 하나님을 체감하고 마음이 천국에 있다는 현실감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일회성 사건이 아닌 반복되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현실로 삼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움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에 대한 체감과 현실감의 자리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을 가질 것이며 그 그리움을 키워나갈 것인가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필코 하나님을 체감하고 천국을 현실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명한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36절 이후에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씨를 뿌리는 밭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 때는 세상 끝이며 추수꾼은 천사라고 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부를 만큼 보리나 밀과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까지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독보리의 낟알은 밀이나 보리에 비해 확연히 작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7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이 본문에서 언급하는 밭입니다. 이 인간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아들들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한 세대의 세상이 바로 이 밭입니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중세시대의 사람들이든 500년 후에 살아갈 사람들이든 자신들이 속한 세상이 밭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심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의 속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름과 존재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그 이름과 실제 존재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마음에 담은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존재를 가지기 위해서 간격을 좁혀가는 과정이 삶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은 그리움을 갖게 되고 갈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구하며 성취하기 위해 살게 됩니다. 이를 꿈이나 비전라고 부른다면 아직 주어지지 않는 특정한 상황을 마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즉 삶이란 마음속에 있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추구해가는 그리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움이란 삶의 추진력이기도 하며 본질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움을 통해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리움이란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내게 없으면 기뻐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특정한 대상이 없는 것이 너무 싫고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유발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십자가 사건을 이루시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 천국으로 돌아가실 것임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보는 가운데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잡도록 하셨습니다. 세상 밖에 모르던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사실임을 가르쳐주심으로써 그리움을 유발시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천국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자들이 바로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한편 마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뿌렸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악한 자의 아들들이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사람 모두가 악한 죄에 빠져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가라지로 비유되고 있는 악한 자들은 천국의 아들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국의 아들들과 유사한 이유는 바로 같은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의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실제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그리워합니다. 이들이 악한 자의 아들들인 이유는 분명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리워하는 하는 것은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당장 뽑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의 아들들처럼 보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일 수 있고, 악한 자의 아들들처럼 보이나 천국의 아들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이때에 사울을 악한자의 아들들이라 여겼다면 사도로써의 바울은 탄생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악한 자의 아들들과 같이 행동했던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천국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아들들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리움의 대상으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나 죽은 다음에 갈 곳으로 배웠을 뿐입니다. 41절을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에 대해 오해하게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넘어지게 하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유지하고 키워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움은 가능성에서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는 믿음 안에서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길을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을 현실적인 대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원죄의 속성은 처음부터 천국을 온전한 크기로 그리워 할 수 없게 합니다. 온전한 그리움이란 신앙의 목표점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리움이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을 현실로 체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죄로 인해 그리움의 크기를 단번에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과정으로써의 십자가 생활화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천사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존재이기에 믿음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인간은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마치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황홀경에 빠졌던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은 영이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과정 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그리워하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천국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로잡혀 있는 천사들보다 육체를 입고 살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그리워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 사랑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바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움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리움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을 체감하게 하시고 천국을 현실로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쁨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당장은 그러한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세상의 유혹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붙잡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과 천국을 그리워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그리움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움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나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극에 달해 천국을 체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죽음입니다. 영이 몸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천국으로 가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바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 연인이 되고 결혼으로 향하는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처음 소개를 받아 만날 때에는 그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이 지속되는 동안에 그리워하게 되고 서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을 보면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끝은 비단 종말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 매일 매일 세상을 끝장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하늘을 향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시간들이 모여 그리움이 커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돈을 그리워하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으로는 돈을 그리워합니다. 천국의 아들들은 돈 문제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럴 때에 돈을 그리워하는 만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오늘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면 그만큼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면 자녀의 형통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자녀의 형통에 대한 그리움에 대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대신 그 그리움의 양만큼을 하늘로 보냅니다.
그리움만으로도 삶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리워하기 위해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면 내가 죽은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적 명령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으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갖게 되는 그리움의 크기를 하늘로 바꾸면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커지고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움이 임계점에 달할 때에 천국을 체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과 상황들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그리움을 키워나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리움이 임계점에 달하여 하나님을 현실로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